환일소식

은 행 나 무

겨울방학호

·발행인 : 박 종 관
·발행처 : 환일고등학교
·주 소 : 서울시 중구 환일길 47

http://hwanil.hs.kr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독보 김예환 박사님 추모 2주기

2019년 11월 22일 운화학원 설립자 독보 김예환 박사님 2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다. 추모식과 추모예배 총 2부로 순서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 2주기 추모식에는 명지대 총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고인에 대한 기억을 회고해 주셨다.

1부 추모식은 '교육계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일대기 영상을 살펴 보고, 추모사와 묵념, 추모가, 트럼펫 연주로 이어졌다. 김예환 박사님 일대기 영상은 박사님의 학력과 1947년 환일고등학교 설립 약력을 보여주고, 박사님의 교육 철학이 담겼다. 추모의 글을 중학교, 고등학교 선교부장이 낭독하였다. '걷는 자 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 1인자가 되자.',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교육철학에 대해 언급하며 그러한 교육이념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하였다. 추모가로는 안준원 졸업생이 'You raise me up'을 불러 추모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하였다. 트럼펫 2중주 연주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가 연주되어 추모 분위기가 더욱 깊어졌다.

2부 순서는 추모예배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으로 박종관 목사님의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진행하였다.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운화학원의 설립자이신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교육철학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은 환일학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2학년 김용현 기자 -

추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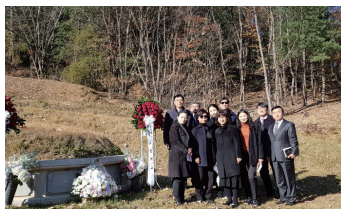
이정철 교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독보 김예환 박사님께서 영면하신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김예환 박사님께서는 운화예일학원을 설립하고 발전시킨 교육계의 거목이셨고, 민족 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김예환 박사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일깨워주시기 위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귀중한 영혼의 구원과 육영사업의 두 가지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시며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시대의 등불이셨습니다. 김예환 박사님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현재 운화학원, 예일학원 총 7개 학교를 설립, 발전시켜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김예환 박사님은 평소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하에 열정적으로 후학을 양성하셨고, 먼 미래를 내다 본 교육이념으로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라는 학교 표어를 만들어 저희 교사와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환일인은 최후의 승리자 김예환 박사님을 늘 기억하면서 김은미 이사장님이 강조하시는 '생각하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창조적인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창조적인 자가 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새 시대에서 더욱 빛나는 환일인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독보 김예환 박사님! 하나님 품에서 편히 잠드소서!



고 김예환 박사님
추모 2주기 기념 식수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독보 김예환 박사님 추모 2주기
2면-6면 종합
7면 명사특강
8면 창의 학술 보고서 대회 우수 보고서
9면 소감문
10면-11면 수시 합격 수기
12면 수상자, 2학기 일정

191223_환일고등학교소식-은행나무(겨울방학호)-9차.indd 1 2019-12-23 오후 2:57:49

종합

일본 아다치(Adachi) 학원과 MOU 체결!

2019년 11월 21일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고등학교)과 일본 아다치학원 그룹간의 협력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조인식에는 아다치 켄고 본부장님, 오키 히로타 사무국장님, 우에다 히로미 오사카관광전문학교장님, 권서영 팀장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아다치 학원은 1958년에 설립하였고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도쿄 4개 도시에 17개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 최대의 전문학교 재단이다.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엔터테이먼트, 관광, IT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아다치 켄고 본부장님께서 아다치 학원에 2019년 현재 아다치 학원에 유학 오는 외국인은 전체 20%가 넘을 정도로 유학생이 많다는 설명을 해주셨다. 아다치 학원의 교육 가치관은 교육 기관이 학생이 동경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생들의 질의 응답 시간에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으로 산학 협동이 많은 점, 담임 선생님 제도가 있어서 상담 취업 등 많은 도움을 주는 점, 앞으로 남학생 기숙사를 설립 예정에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양 학원의 MOU 체결로 환일중·고등학교 졸업생, 교직원 자녀 등 학교법인이 추천한 자의 아다치학원그룹 내 대학입학 및 장학금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력 조인식은 환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는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

- 1학년 성락원 기자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입학 설명회 실시

2019년 12월 19일 위스콘신 대학 정영수 한국담당 책임자가 환일고등학교에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정영수 책임자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위스콘신주의 위치, 무슨 과가 유명한지, 위스콘신 대학교의 영어 이니셜 UWRF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 사이에 있는 대학교로 미국 중서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13개의 분교가 위스콘신주 전역에 퍼져있다고 한다. 올해까지 약 17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모든 UW 시스템 캠퍼스 및 열린 프로그램은 교육, 연구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위스콘신 주민들의 '지식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영수 한국담당 책임자가 하신 말씀 중에 '항상 목적이 있어야 더 집중하고 시간을 아낀다. 시간은 목숨이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처음에 대학 소개 영상을 볼 때 중간에 멈춘 후 학생들에게 무슨 영어 단어가 나왔는지 질문을 하셨다. 하지만 기억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다. 또 다시 영상을 볼 때 학생들은 다시 물어 볼 것을 알기에 집중해서 보았고 기억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왔다. 목적을 가진 순간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라는 정영수 책임자님의 말씀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계획하고 그 목표를 위해 시간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깊은 말씀이었다. 이번 위스콘신 대학 설명회를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학을 위해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1학년 이현규 기자 -

종합

개교 72주년 기념 가을밤 열린 음악회

개교 72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18:30시부터 환일중학교 최윤경, 김소연 선생님, 환일고등학교 탁우빈, 염정훈 선생님의 지도아래 본교 운동장에서 '가을밤 열린 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열린 음악회에는 환일중, 고등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관객도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음악회가 되었다. 환일고 합창부의 '아름다운 나라' 합창을 시작으로, 성악과 피아노, 관현악 연주,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공연들이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한이 쌓일 시간', '홀로 아리랑'을 부른 테너 김희석 교수님, 성악 듀엣을 하신 정지약, 박지나 성악가님의 목소리는 웅장하고 아름다웠으며 피아노 트리오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이루어진 현악 4중주, 영화 OST등을 연주한 관현악 5중주,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의 훌륭한 연주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목소리로만으로 멋진 화음을 만든 아카펠라 'Doo Wap Sounds'의 노래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퓨전 국악 밴드의 연주는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음악이라 신선했고 전자 현악 3중주의 연주는 관중들의 흥을 한껏 높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환일고 합창부, 'SHINE'이 피날레를 장식했다.

열린 음악회는 지역주민과 환일인이 한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자리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의 밤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였다.

- 1학년 임현석 기자 -

추수 감사 예배

11월 25일 환일 고등학교 대강당에서 2019학년도 추수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감사함을 떠올리며 예배를 드렸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과 과일 바구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혜롭게 쓰인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함이 느껴졌다.

운화성결교회 이세명 목사님께서 '작은 것에 감사'(시편 136:23-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다. 환일 고등학교 중창단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1학년 류호빈 기자 -

제 43회 성가경연대회

12월 20일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제43회 성가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환일고등학교는 미션 스쿨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을 학급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대회가 열린지 벌써 43회가 되었다.

김철우 전도사님의 개회선언과 박종관 교장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2학년 김용현 학생과 1학년 이진호 학생의 사회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1학년 10반과 2학년 1반으로 1학년 10반의 경우 '주와 함께 가리라'라는 곡으로 아름다운 화음과 호른 연주의 가미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고, 2학년 1반의 경우 율동을 함께 하며 부른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곡으로 수상하였다.

지휘상은 1학년 이영호, 2학년 강대윤, 반주상은 1학년 송준, 2학년 이찬행 학생에게 돌아갔다.

수상을 하지 못한 반도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된 뜻깊은 대회였다.

- 1학년 서한결 기자 -

종합

봉학 마루제 -전시, 이벤트

2019년 10월 18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즐기고 그 동안의 시험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봉학마루제가 있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학교 곳곳에서 각각의 동아리가 준비한 먹거리와 체험활동들이 있었다. 동아리 시간마다 틈틈이 준비해 온 학생들의 작품이 노력의 결실을 맺었고 특히 미술반 학생들의 조형물, 영재 학급의 창의적 산출물이 전시회장을 빛냈다.

각종 이벤트로 자신만의 개성있는 컵 만들기, 케리커쳐 그리기, 중국 민속놀이 즐기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었다. e-sports 대회와 풋살 경기, 올스타 축구 경기로 인해 학생들의 반별 응원 열기가 뜨거웠다. 학생들이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보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학년 2학년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던 축제였고 2학년들에게는 마지막 축제라서 여운이 깊게 남을 것 같고, 1학년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음 축제에서 후배들에게 더 좋은 행사들과 무대들을 보여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날려 버리고,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도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 2학년 방주현 기자 -

봉학마루제 - 공연

지난 10월 18일 환일고 강당에서 제 21회 봉학마루제가 열렸다. 행사는 본교 교정과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는데 본교 교정에서는 각종 동아리 행사 부스, 학부모님들의 쿠폰제 먹거리 장터로 그리고 대강당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공연과 2학년 공연이 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시작은 이경수 학생회장의 인사와 박종관 교장님의 축사를 필두로 환일고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 밝은 하루의 막을 열었다. 1주 사회는 강건과 송민규, 2부는 윤용준 학생부회장과 김용현 학생이 사회를 맡아 주었다. 이 뒤 방송반의 축전 영상이 있었다. 공연 진행은 중학교 학생들의 클래식 합주, 중학교 3학년 오정훈 학생의 피아노 독주 그리고 경배와 찬양팀의 찬양 그리고 고1 최건혁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가 진행되었다.

기독교 학교인 환일에서 이 축제의 백미는 바로 경배와 찬양팀의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당의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조용히 Intro 공연을 시작하다 하얗게 빛나는 십자가를 덮은 막이 열리면서 이를 배경으로 삼아 환하게 켜진 조명 축제 아래 신나게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면서 공연하는 모습은 실로 일품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뒤 진행된 패션쇼에는 1차에는 이희현 외 3명 고1 선발팀의 정성을 드린 코스프레 배우 베트맨과 얼룩말 댄스 퍼포먼스와 할리퀸과 조커의 콩트쇼가 진행되었다. 2차에서는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를 흉내내는 'IS'라는 팀명으로 고2 이은성 외 8명 학생들의 Likey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그 다음으로는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최종 합격한 장기 자랑이 진행되었다. 고2 정종호 학생의 '가족사진' , 고1 정희수 학생의 혼모노(Honmono) , 고2 박영우 학생 외 4명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박다솔 학생 외 4명의 'icy' 공연으로 끝이 났다.

대망의 축제의 끝은 Boney M의 sunny를 곡으로 환일중 · 고 선생님들의 교사 댄스가 있었는데 이사장님도 함께 하셔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교사의 화합을 끝으로 봉학마루제가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

- 1학년 신동욱 기자 -

종합

졸업 여행

2019년 11월 27일-29일 2박 3일 동안 졸업 여행이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레일바이크를 탔는데 추운 날씨였지만 레일바이크가 속도를 내자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10여 분 동안 주변의 풍경을 구경하며 지난 3년간의 학교생활을 상기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하이원 스키장에서 보드와 스키를 즐기며 설원에서 친구들과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였다.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마술과 묘기가 신기해서 계속 보게 되었다. 공을 6개까지 들고 저글링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둘째 날에는 곤돌라를 타고 하얗게 눈이 덮인 산 정상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설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워터파크에서 슬라이드와 스파, 유수풀, 파도풀을 타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힐링되는 느낌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의 마지막 여행이라는 점이 아쉽기도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는 결심으로 졸업 여행을 마무리 하였다.

- 3학년 김동건 기자 -

고1 스키캠프

2019년 12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본교 1학년 220여명이 교외체험활동의 일환으로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리조트에 2박 3일간 다녀왔다. 첫째 날에는 날이 따듯해 하이원 워터월드 일정을 먼저 진행하였다. 추운 겨울에 따듯한 실내 물놀이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유수풀, 파도풀, 슬라이드 등 물놀이를 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쌓은 스트레스 뿐만아니라 체험 학습 직전에 있었던 기말고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모두 해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숙소에 짐을 풀고 야간 스키가 진행되었다. 야간이긴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설원이 아름다웠으며 둘째 날 본격적인 스키 강습 및 자유 시간을 위해 조심스럽게 스키 타기를 마무리하였다.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이제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고 지난 일년을 되돌아 보며 친구들과의 추억을 되새겨 보았다. 둘째 날부터는 새하얀 눈이 쌓인 슬로프 위에서 같은 반 친구들이 아니어도 서로 스키를 가르쳐 주면서 새로운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스키 강습도 받고 자유 스키를 즐기면서 한 층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마지막 날 출발하기 전에 뷔페식당에서 연어, 즉석 구이 고기 등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어서 체험학습의 마지막을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었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너무 고요하게 모두들 잠에 취해 있었다. 이번 체험 학습을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할 앞날을 고대하며 1학년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체험활동이었을 것이다.

- 1학년 윤준석 기자 -

환일고 입학설명회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6시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2020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였다.환일 고등학교 입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 300여명이 참여하여 설명회 장은 그 열기로 뜨거웠다.먼저 창의인성부장님의 개회를 알리는 인사와 학교 홍보 동영상을 상영으로 학교의 전통과 특색 사업을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다음 순서로 박종관 교장님의 기도와 인사말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 후 이정철 교감님의 진학 프로그램 안내가 있었고 각부서 담당 부장님 및 교사가 체육 중점 학급 설명, 교육과정 안내, 진로 탐색 및 방과후 학교 안내, 대입 제도 안내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심도 높은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 출신 중학교 별로 여섯 장소로 나누어 담당 부장님들의 자세한 설명이 1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20년 고등학교 신입생이 되는 예비 고1 학생들이 환일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를 바란다.

- 1학년 이현규 기자 -

수능결의 예배

11월 13일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능 결의 예배가 진행되었다. 고등학교 1, 2학년 후배들의 응원과 선생님들의 격려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또한 학생회와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준비한 수능 격려품을 수험생들에게 나누어 주며 후배들이 준비한 응원가를 불렀고 그 소리에 맞추어 울리는 북소리는 우렁찼다. 수학능력 시험의 긴장감을 잠시 나마 있게 해 주었다. 박종관 교장님의 '안심하라'라는 설교 말씀처럼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고, 김은미 이사장님의 '노력하는 자에게 결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씀처럼 3학년 선배님들 모두에게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

- 1학년 허승범 기자 -

종합

토론왕 대회

2019년 11월 8일-11월 9일 양일 동안 본교에서는 합리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기 위해 제10회 토론 대회를 실시하였다.

11월 8일 예선에 참여한 팀은 20팀으로 1학년 12팀, 2학년 8팀이 참여하였다.

팀의 구성은 3인 1팀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예선을 통과한 8팀이 11월 9일 토론 대회 본선에 참여하였다.

이번 토론 대회 논제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다섯 가지 논제를 제시하고 제비 뽑기를 통해 토론의 논제를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결선에 올라간 1학년 손민우와 친구들(강동민, 고성주, 손민우)팀과 2학년 무무간 간다(박다솔, 박은상, 서홍욱) 두 팀이 '인터넷 상의 악플, 처벌해야 할 것인가?'라는 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의 우승은 1학년 '손민우와 친구들'이 차지하여 대회의 파란을 일으켰다.

다양한 논제에 맞춰 토론 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 2학년 박은상 기자 -

창의 학술 보고서 대회

2019년 10월 30일 6, 7교시에 환일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창의 학술 보고서 대회가 열렸다.

지난 4월부터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거나 개인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탐구하여 보고서를 39팀이 제출하였고, 그 중에서 자연 부문에서 5팀, 인문 부문에서 5팀이 각각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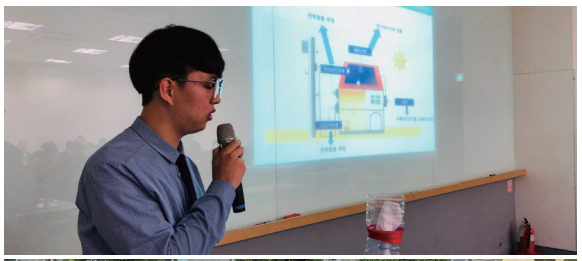
발표는 시각 자료와 함께 발표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인문 부문에서는 <미래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인식 및 기대> 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지석, 유승훈 학생이 금상을 차지하였고, 자연 부문에서는 <보행 로봇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보행 로봇의 다리가 이족만이 아니라 육족, 다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한 양원석, 황재영, 송건 학생이 금상을 차지하였다.

본선에 참가한 모든 팀들이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뜻 깊은 대회였다.

- 2학년 이지석 기자 -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



2019년 10월 19일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시청각실에서 실시하였다.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영재학급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과학, 수학, 융합 세 가지로 구분되며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내용도 다양하다.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결과를 내는 '골드버그' 장치 고안하기부터, 칼레이도 사이클, 시계반응실험, 에어로켓, 수학과 과학적인 기초에 의한 음악의 발견 등의 흥미로운 주제로 총 1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한다. 그 중 영재학급의 꽃은 단연 산출물 발표 대회가 아닐까 싶다.

팀을 이루어 주제를 선정하고, 머리를 맞대며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산출물까지 제작하는 과정에서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나아가 산출물 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발표회를 통해 영재학급 내 모든 팀의 산출물 제작과정을 나누며 뛰어난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가는 시간을 가졌다.

영재학급을 모두 수료하고 나면, 한층 깊어진 지식을 얻은 자신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수업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뼈와 살이 돼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영재학급 담당선생님이신 김동현, 배수화, 이은형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재학급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생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 2학년 송 건 기자 -

작가와의 대화

2019년 10월31일 환일고등학교 독보도서관에서 강민준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강민준 작가는 자전거를 타고 3개월간 유럽 10개국을 여행한 경험이 담겨 있는 '유럽은 내 페달 위에 있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유튜브 채널 'JESUS PRISM'을 운영하고 있다.

강연의 주제는 '여행과 글쓰기와 삶'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전에 강민준 작가에게 관심이 있거나 '작가'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고 자신의 진로를 그런 방향으로 정한 학생들에게 사전 신청서를 받아서 참석자를 선정하였고 환일고등학교 길우회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였다.

'여행과 글쓰기와 삶'이라는 강연을 통해 강민준 작가는 여행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 유럽 문화와 지리에 관하여 학생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학생들이 자신의 체험과 생각을 구체화하여 표현하는 방법,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에 대한 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마치 여러 나라를 여행한 듯한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1학년 윤준석 기자 -

명사특강

김종두 박사님의 명사 특강

진로 설정과 인생 설계 방법 찾기!

2019년 10월 23일 금호건설 토목플랜트 본부 기술 연구소 수석 연구원 김종두 박사님께서 명사특강을 해주셨다. 이번 명사특강의 주제는 진로 설정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설정과 인생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지금 나와 내 친구들은 선택과목부터 시작해 대학, 학과, 취업, 직업 등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 시기인 만큼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

예를 들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진학 컨설팅을 받지만, 진로 컨설팅 단체들은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각 학교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반대로 학교 교사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나, 학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는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어 정보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무엇보다 진심으로 격려가 되는 응원을 해준다. 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무엇보다 환일고 학생을 위해서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

이날의 명사특강을 해주셨던 김종두 박사님은 객관적으로 최상위 대학교는 아닌 대학을 가셨었지만, 지금은 웬만한 명문대생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셨다.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을 명문이라 불리는 대학에 보낸 좋은 학부모이셨기 때문에 신뢰가 갔다. 대학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환일고 학생들 역시 일단 좋은 대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좌절하기 보다는 대학이 전부인 것은 아니니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 1학년 조승범 기자 -

마상우 음악 감독님의 명사 특강

영상 음악의 종류와 역할

지난 11월 16일 마상우 음악 감독님의 명사특강이 환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첫 명사특강을 들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19학년도의 마지막 명사특강이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고 진로를 음악 쪽으로 정해서 항상 음악을 주제로 한 명사특강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명사특강의 주제가 '영상음악의 종류와 역할' 이었다. 이번 명사특강의 명사님은 대중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 음악을 작곡하신 마상우 감독이었다. 감독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유럽에서 보내셨고 예술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전공 공부는 한국에서 하셨다. 어린 시절 해외 거주의 경험이 음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풍부한 감성을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듯하다.

대표적인 작품이 영화 검사외전, 히말라야, 해적 : 바다로 간 산적 등 유명한 영화에 음악 감독님으로 참여 하셨고, 드라마로는 2016년 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에도 참여 하셨고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배가 본드'에도 감독님께서 음악 감독님으로 참여하셨다.

감독님께서 작곡을 하시기 때문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사용하시는 작곡 프로그램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했는데 역시 '큐베이스(CUBAS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하셨다. '로직(Logic), '에이블톤(Ableton)' 등, 수많은 작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큐베이스가 가장 널리 쓰인다. 본인도 큐베이스를 사용하여 작곡하는데, 큐베이스 프로그램에 관하여 음악 감독님이 특강을 하셔서 이해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었고, 공감도 많이 얻었다.

창작이라는 것이 정말 힘든데, 음악 감독이라는 직업은 제한된 시간 안에 부탁받은 영상에 대한 음악을 작곡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압박도 창작에서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잘 극복해 가며 작업을 하시는 마상우 감독님이 존경스러웠고 앞으로 작곡 분야로 진로를 정한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특강이었다.

- 1학년 서강운 기자 -

창의 학술 보고서 대회 우수 보고서

창의학술보고서 대회 자연 부문 금상 2학년 황재영, 양원석, 송건

보행 로봇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연구

2학년 황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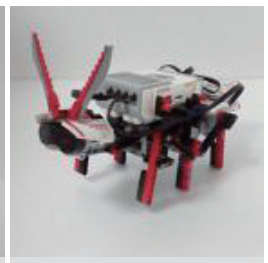
2학년 양원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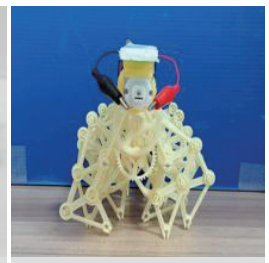
2학년 송건

ted강연과 명사특강에서 로봇에 관한 강의를 듣고 로봇의 미래 전망 등 앞으로의 로봇 발전에 관한 수준 높은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미래의 로봇에 대해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로봇, 이번 기회를 통해 로봇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보기로 결심했고, 그 중 보행 로봇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보행 로봇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논문을 쓰게 되면서 2족 보행 로봇, 6족 보행 로봇, 다족 보행 로봇들을 이용해서 각각 다른 조작 변인을 설정해 실험을 해보았고 여러 관계식, 함수, 비례식들을 얻었다. 그 중 효율이 좋았던 방법도 있었지만 생각했던 만큼 좋은 효율을 내지 못했던 방법도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했던 실험들을 총정리 해보려고 한다.

먼저 2족 보행 로봇에서는 모터의 출력, 발의 면적, 무게를 조작 변인으로 설정하고 실험했다. 모터의 출력 실험에서는 속도와 마찰력 사이의 관계를 새로 발견하게 되었다. 마찰력이 낮을 때는 출력을 높일 때 효율이 낮아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발의 면적은 속도의 효율을 높인다기보단 안정성에 더 관여를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게 또한 속도보단 안정성 및 무게중심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2족 보행 로봇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게중심을 잘 맞추고 발의 면적을 넓히고 마찰력도 높인 뒤에 출력을 증가하는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6족 보행 로봇은 모터의 출력, 다리 길이, 마찰력들을 조작 변인으로 두고 실험했다. 모터의 출력 실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 모터의 출력은 속도와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6족 보행 로봇은 2족 보행 로봇에 비해 속도와 마찰력 사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도 확인했다. 다리 길이는 긴 게 더 속도가 빨랐지만 무턱대로 다리 길이를 조정하면 캠 원리를 이용한 보행 로봇일 경우엔 중심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직접 경험하면서 알게 되었다. 마찰력 실험은 점토를 이용했는데 속도에 꽤나 큰 차이를 가져와 좋은 효율을 보였다. 6족 보행 로봇은 다리의 길이보단 바닥과의 마찰을 높이게 가장 효율이 좋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다족 보행 로봇은 무게와 마찰력을 조작 변인으로 실험했는데 무게의 영향은 분산능력이 뛰어나 위의 보행 로봇들보다는 덜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마찰력이 영향이 컸다.

이족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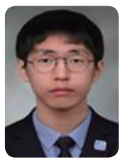

육족 로봇


다족 로봇

2족, 6족, 그리고 그 이외의 다족 보행 로봇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보았다. 실험은 모두 LEGO MINDSTORM EV3을 이용해 직접 만든 로봇과 영재학급에서 만든 로봇을 활용했다. 재료를 준비하고 그 재료들로 로봇을 만들고 실험하며 사진을 찍는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실험 결과를 표로 만들고 조작변인인 무게, 다리 길이, 마찰력 등과 속도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또한 이 관계를 통해 공식도 만들고 결과를 대입하여 맞아떨어질 때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다족 보행 로봇을 더 내구성 있게 만들지 못했다는 등의 아쉬움도 있었다. 얼마 전인 8월 6일, 앞에서 언급된 로봇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홍이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레노버 Transform 3.0'에서 나비로스(NABiRoS)와 알프레드(ALPHRED) V2라는 로봇을 소개했다. 이 로봇들은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했던 인간처럼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방식의 이족보행로봇이 아니라서 안드로이드 로봇의 상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중 나비로스는 무릎을 굽혀 앞으로 걷는 방식이 아닌 옆으로 걷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이동하는 데 뛰어난 안정성을 보였고 속도도 빨랐다. 하지만 좌우로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것을 보완한 것이 알프레드 V2이다.알프레드 V2는 다리가 4개이며 거미와 유사했다. 이동 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속도도 빨랐고 점프, 노크 등 기존 로봇이 수행하기 어려운 동작도 가능했다. 7월 31일에는 어질리티 로보틱스(Agility Robotics)가 배송용 이족 보행 로봇인 디지트(Digit)를 개발했다. 이 로봇은 두 개의 팔과 센서 세트를 갖추고 있으며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최대 18KG 무게의 상자를 들어 올릴 수 있다. 나비로스, 그리고 이것의 단점을 보완한 알프레드 V2를 통해 보행 로봇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겼으며 디지트처럼 미래에는 여러 분야에서 보행 로봇이 우리 생활에 크게 개입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행 로봇은 그 발전 가능성이 크고, 활용 가능 범위도 다양해서 머지 않아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하여 얻게 될 여러 가지 일상적 편리함에 대한 기대가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보행 로봇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데니스 홍 교수도 로봇의 개발 단계에 이런 효율성 연구를 수없이 진행해 보았을 텐데, 그런 데니스 홍 교수 및 여러 다른 로봇 공학자들이 로봇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알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창의학술 보고서 대회 인문 부문 금상 2학년 이지석, 유승훈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인식 및 기대


2학년 이지석

2학년 유승훈

이러한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된 동기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북한과의 끊임없는 갈등, 미 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해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는 극도의 불안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함께 대두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과거부터 이어져온 유토피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통해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현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했다. 우선 근대 유럽에서 귀족과 국왕의 특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자유권을 신장하며 제도적인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꿈꾸던 시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계급의 자유권이 커지고 점차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갔으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시민은 산업혁명의 결과로 확대된 상품경제를 통해 자본가로서의 경제적인 이익을 자신이 주도하는 국가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품경제를 실현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희생이 따라야만 했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본주의적 분업이 인간 소외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지식인들의 비판과 노동자들의 반발은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사회체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모두 능력에 맞추어 일하지만 분배는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는 방법, 즉 공산주의를 찾아냈다. 이것은 모든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생산가치가 분배, 소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주의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가져온 노동착취와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복하겠다는 사회주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 못지않은 문제점들을 노출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전체주의,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에서의 사회주의는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 공산당 일당 독재의 한계,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자극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혁신을 유발하지 못하는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노출하였다. 자유권의 확보에서 출발한 유토피아의 희망은 자본주의 모순과 함께 평등과 분배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주의를 불러왔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통제할 뿐 아니라 부패한 권력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로 인한 폐해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들도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앤서니 기드슨은 '제3의 길'을 통해 시장 만능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른 갈등의 내재화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극복하는 사회체제를 모색하였다.

1980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문명의 미래를 예견하면서 컴퓨터의 발달에서 시작하여 제조업과 산업 기술 중심의 이전 산업혁명 시기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제3의 물결이 다가올 것이라 하였다.

이제 21세기에 한국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현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회적인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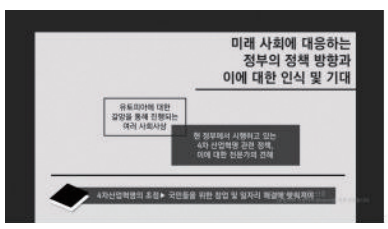
따라서 저희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국내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정책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경제 민주화, 서민경제, 보편적 복지 등을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 성장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 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하였다. 또한 4대 복합·혁신 과제로는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의 혁신으로 인구 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을 내세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으로서 2017년 10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신생 벤처기업들의 활동을 장려하여 주었다.

지금까지 유토피아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진행되는 여러 사회사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현 정부에선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보면 4차 산업혁명의 초점이 국민들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 해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소감문

봉학 마루제

2학년 허재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몸을 감싸는 가을이 왔다. 가을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계절이다. 학교 축제인 봉학마루제를 빛내주기 위해, 동아리에 속한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전시물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축제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10월 18일날 봉학마루제가 열렸다. 혹여나 기상이변이 일어나 취소될까봐 마음을 졸였지만 날씨가 참 좋았다.

동아리마다 자리를 잡고 준비물을 챙기며 분주한 아침부터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다. 우리 2학년은 1시 10분부터 강당에서 축제가 시작되기에 그 전까지는 동아리 부스에서 이것저것 즐겼다.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음식이다.

나는 방송부에서 파는 닭꼬치가 인기가 많아 줄이 길 것을 예상해서 제일 먼저 닭꼬치를 사먹었다. 옆에 환일경제동아리에서 파는 소떡소떡도 팔아서 고민의 여지없이 사먹었다.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어느정도 배를 채우고 노래방으로 향하여 노래 한 곡을 뽑았다.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대회를 보았다.

내가 하는 게임이 아니었기에 볼 줄을 몰라 어영부영 스크린만 바라봤다. 게임 종류를 늘려 많은 학생들이 즐기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쉴 새 없이 축제를 즐겨 지친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부 학생들이 보드게임과 카드게임을 준비하여 1등을 하면 물병을 준다기에 눈에 불을 키고 카드게임에 임했다. 1등을 2번이나 했지만 상품을 하나 밖에 받지 못한 것은 아쉬웠다. 하지만 상품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었다. 그렇게 점점 축제가 무르익고 점심을 먹은 뒤 드디어 축제의 꽃 장기자랑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해온 춤, 노래를 부르며 축제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여장을 하고 춤을 췄던 아이들의 공연이 제일 인상깊었다. 파격적인 의상선택과 화장은 우리를 매우 재밌게 하였고 칼군무 또한 눈에 확연히 띄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춤을 춘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이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까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끝으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신 춤으로 축제는 서서히 마무리 되었다. 그 외에 축구경기 관람, 제기차기, 중국 전통 팽이 돌리기, 미술그림을 즐겼다.

축제는 다행히 안전하게 끝이 났다. 나는 이 축제를 위해 모두가 열심히 준비해왔다는 것에 감탄하였고 우리 환일 학생들의 다재다능함이 이 사회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이 되기에 축제가 더욱 뜻깊고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았다. 그리고 2학년이 될 1학년 학생들은 새로 들어오는 1학년들을 잘 이끌어 책임감있게 환일 봉학마루제를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라사랑 계룡대 병영체험

1학년 이희현

평소 군인과 관련한 진로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충남에 위치한 계룡대 병영체험이 있다고 해서 체험학습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0월 14일-15일 1박 2일 동안 군인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신청받아서 실시하였다.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았는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선배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학년 22명, 2학년 8명으로 30명의 학생이 함께 하였다.

첫 날 학교에 6시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우선 계룡대 안에 있는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숙소는 정말 '진짜 사나이'에서 볼 법한 숙소였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병무청에 가서 현역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논산 훈련소에 도착했다.

논산 훈련소는 기본적인 훈련과 신체 검사 및 자대 배치를 해주는 곳이었다.

운이 좋게도 새로 입대하는 사람들을 반겨주는 행사를 보았다. 보는 도중 뭔가 미묘한 감정이 들었다.논산 훈련소에서 밥을 먹은 후, 다시 계룡대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계룡대라고 하길래 대학교 이름인 줄 알았지만, 그냥 이름이 계룡대였다. 계룡대는 충청남도 계룡시에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육군본부, 해군본부(해병대 포함), 공군본부 3가지 본부가 존재하는 통합 기지였다.

짐을 풀고 계룡대를 버스로 돌며 구경하였는데 길목마다 실제 전쟁에 쓰였던 기갑차량과, 전투기 같은 기계들이 전시 되어 있었다. 계룡대 구경을 끝낸 후 교관님들이 px에 갈 시간을 준다고 하였다.

나는 기대가 부푼 마음으로 버스가 px에 정차하는 것을 기다렸다. px에서 많은 먹거리를 산 후 숙소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친구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날엔 아침 구보를 뛴 후 전투식량으로 밥을 먹었다. 자체 조리기능이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밥을 먹은 후에 유격훈련을 하였는데 힘든 것 보단 너무 재밌었다.

사격훈련을 마지막으로 군대체험은 끝이 났다.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었고, 나의 진로를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졸업 여행

3학년 이태호

수능이 드디어 끝났다. 그 힘들었던 준비기간을 참고 버틸 수 있었던 건 수능이 끝나고 있는 졸업여행 덕분이었다.

졸업여행만 바라보고 수능을 준비했고 힘들고 서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런 졸업여행이 드디어 다가오다니! 너무 설레고 가슴이 뛰었다. 벌써 졸업여행을 간다하니 이상한 기분도 들었지만 학교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니 최대한 즐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날에는 숙소배정을 받고 스키강습을 받았다.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후 늦은 시간에 가졌던 담임선생님과의 대화였다. 3년 동안 수고 많았고 대학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많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니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과 1년 동안 함께 해 줘서 너무 고마웠고 좋은 추억이라고 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뭉클했다.

이렇게 선생님의 따듯한 면을 보니 그동안 선생님의 엄하셨던 모습도 다 우리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둘째 날에는 오전 오후 모두 스키를 탔다.

오전에는 평소 받을 수 없었던 강습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다. 게다가 친구들과 함께 타면서 배우니 더 재밌었고, 배운 기술을 가지고 오후에 자유스키를 타니 더 안전하고 즐거웠다.

둘째 날 밤에는 학교에서 간식으로 닭강정과 소떡소떡을 줬다.

반 친구들과 숙소에서 수다를 떨며 간식을 먹으니 말이 끊이지를 않았다. 이게 모두 다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대화를 다 기억하고 싶을 정도였다. 우리가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기는 무척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시간이 더욱 소중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준 환일고등학교가 참 고맙고 3년 동안 좋은 학교를 다닌 것 같아 자랑스럽다.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환일고등학교의 졸업여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스키 캠프 소감문

1학년 김민규

올해 들어 두 번째 스키캠프를 갔다. 2월 달에 갔을 때에는 서로 어색하고 같은 중학교 출신들끼리 뭉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훨씬 더 단결력 있는 모습이었다. 가기 전부터 친구들과 하이원 리조트의 맛집을 검색하며 스키캠프를 기대하면서 첫 날이 밝아왔다.

버스를 타고 휴게소를 들려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원 워터파크에 갔다. 반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유스풀, 파도풀에서 놀자 시험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겼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 했다. 하이원 워터파크의 터주 대감이라고 불리는 워터슬라이드를 2번 탄 후 우리는 리조트로 이동했다.

가보니 지난겨울과 같은 넓은 방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3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점심을 먹으며 아이들과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금세 캄캄한 밤이 되어 야간스키를 탔다.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오랜만에 타 보는 야간스키라서 조금 무서웠는데, 타 보니 아주 재미있고 즐길 만 했다. 친구들 역시 재미있다고 하였다.

취침 전 학급 친구들 함께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같은 반으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꼈다.

그 이후, 숙소로 가서 편의점에서 산 간식을 맛있게 나눠먹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첫날에는 친구들 간의 단결력과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아왔다.

경견회를 하면서 신앙심을 다지며 하루를 시작한 후, 1학년 전원은 또 스키를 타러 갔다. 쌩쌩 부는 바람과 함께 눈이 내렸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게 잘 탔다.

최상급을 타 보았는데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즐길 수 있었다. 또한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하이원 리조트가 한층 더 좋아졌다는 것을 곤돌라에서부터 체감했는데, 곤돌라에 히터가 나오고 미디어 장치도 있어서 올라가는 동안 심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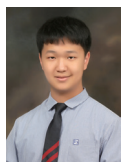
마지막 날, 우리는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 뷔페에는 고기, 빵, 심지어 육회까지 있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보니 모두 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시험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반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며 돈독해 질 수 있었다.

일상에서 잠깐 탈출하여 설원에서 놀다 보니 가는 시간이 아까울정도로 행복했다.

수시 합격 수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합격

3학년 민동진



1.지원대학/학과/전형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지역균형선발전형

2.내신 등급/ 수능 최저 반영 유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장이 재학생 중 2명을 선발해 추천하는 전형으로 1등급 초반의 성적을 지니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는 국수영탐 4과목 중 3과목이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탐구과목으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3.집중 준비 기간 : 집중 준비 기간이라고 딱히 꼽을만한 기간은 없지만 3년 동안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이 서울대학교 입학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4.준비한 내용 : 서울대뿐 아니라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에 가장 많은 선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학종은 크게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으로 나뉩니다. 우선 교과 영역은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종이 학생의 잠재력을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수시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하기에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3년동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학종은 학생의 잠재력을 중시하기에 자신이 1, 2학년 때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상승 곡선을 그린다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영역은 수상실적, 독서, 과세특, 행발, 자율활동 등에서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기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교과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기부에 명확하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 꿈은 스타트업 경영자였기에 저는 탐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스타트업 관련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고, 독서와 과세특 모두 기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생기부 글자수를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여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나아가 사회에서 하고싶은 것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성공 요인 :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 의미없는 활동은 없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작성할 때쯤되면 알게 되겠지만 명사특강, 멘토링 등 정말 사소해보였던 활동조차도 스토리를 만듦에 있어 매력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배분들도 학교 활동에 '이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준비하며 느꼈던 아쉬움 또는 어려움 : 자소서, 면접 준비는 닥쳐서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3학년 때에는 내신과 수능, 비교과 활동, 자소서, 면접 준비 등 해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사전에 준비해 놓기를 권장합니다.

7.후배에게 하고 싶은 조언 :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 심경의 한 구절인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3 때는 인강강사는 누구로 할까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 무슨 전형으로 갈까,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과를 낮춰서 갈까 등 고민이 많아질 것입니다. 고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고민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혼란하게 해 오히려 수험 생활에 독이 됩니다.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후배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합격 / 포스텍 무학과 합격

3학년 김동건

1. 지원대학/학과/전형 : 서울대학교/산림과학부/일반전형, 포스텍/무학과/일반전형

2. 내신 등급/수능 최저 반영 유무 :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때의 성적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등급은 1.49이지만 3학년 때 이과 내신 1등을 할 정도로 내신을 잘 받은 것이 서울대에 합격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서울대학교의 일반전형은 수능최저가 없습니다.

3. 성공 요인 : 일반고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매우 좋은 내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사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학년 내신 기간 때 매일매일 거의 모든 수업을 키다리 책상에서 듣고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며 졸음을 버텼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시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독한 마음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수학을 좋아한다는 사실 또한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수학 문제를 풀고 칠판에 써가면서 교수님께 설명하는 식의 면접들에서 최초합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아쉬운 점 : 아쉬운 점은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과를 지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학년 때 왜 내신을 좀 더 필사적으로 챙기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듭니다. 학교에서 sky를 30명씩은 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과에서 10등 안에만 들면 충분히 연고대는 갈 수 있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2학년 때 내신을 필사적으로 챙기지는 않았던 것 같고 결국 3학년이 되어 대입상담을 할 때 후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 저는 여러분들게 대학은 미리미리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담임 선생님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내신 등급이 필요한지,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보세요. 연고대의 특기자 전형, 서울대, 포스텍 등의 경우는 문제를 풀고 교수님들께 설명하는 식의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뛰어난 수학, 과학 실력이 필요하고 연고대의 다른 대부분의 전형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제시문 면접을 시행하기에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면접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께 좋은 대학교의 낮은 과를 지원해서 전과나 복수전공을 하면 된다고 권유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합격

3학년 박주호

1. 지원대학/학과/전형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지역균형전형

2. 내신등급/ 수능 최저 반영 유무 : 1학년 내신 1.4 2학년 내신 1.08 3학년 내신 1.0 / 수능 3합 6(모두 2등급 이내)

3. 집중 준비 기간/ 준비한 내용 : 수학능력시험(11.14)을 치르고 나서 1주일 뒤인 11. 22일부터 11.29일 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에 대한 예상질문을 만들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복습하였습니다.

4. 성공 요인 : 1)내신 상승 곡선 - 내신 성적이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2)독서 - 독서량이 약 80권 정도, 전공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다양하게 읽었습니다. (EX: 영어, 과학, 문학, 예술, 사회학, 경제, 경영, 수학) 또한 무엇보다 책을 '실제로' 다 읽으며 그 내용에 대해 상기하고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도록 노력한 것이 면접장에서 교수님들과 토론하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식견과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5. 준비하며 느꼈던 아쉬움 또는 어려움 :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인문 계열에서 서울대 입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선배나 서울대학교 학부생인 선배의 조언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조언과 개인적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후배에게 하고 싶은 조언 : 잠을 충분히 자세요.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서울대 미대 합격생 (김규찬, 김동해)와 이사장님, 지도선생님>

<2020 대입 수시합격 현황>

(2019.12.19. 현재)

2020대입 수시합격현황	의대	서울 최상위 대학(명)			사관	DGIST	포항공대	서울상위 10개대학
		서울	연세	고려				
인원	5	6	18	15	1	1	1	115

수시 합격 수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합격

3학년 김지원

1.지원대학/학과: 서울대학교/건설환경공학부/일반전형

2.내신 등급/ 수능 최저 반영 유무: 서울대 기준 대략 1.5 저는 1학년 때 1.6으로 시작해서 2학년 때 1.4 까지 올린 후 3학년 때 1.9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

그래도 3년 내내 수학 내신 등급은 계속 1을 받아왔고 서울대 건설환경 공학부에서 중요시 여기는 수학 물리 내신이 다 최상위 1등급이라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습니다.

3.성공 요인: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신을 챙겨온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과로서 가장 중요한 수학 같은 경우에 경시대회와 탐구 논문 등 여러 활동을 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로 여러 활동을 열심히 참가했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공부를 할 때 새벽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2학년 때 부터는 거의 맨날 2시까지 했던 것이 내신 시험범위를 정확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말과 3학년 때 생기부 내용을 과에 맞춰서 관련있게 쓴 것이 수시 1차 전형을 통과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생기부내용을 쓸 때에 '과연 이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될 까?'라고 고민하는 것보다 대충 진로와 엮어서 쓴다면 나중에 꼭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아쉬운 점:1,2학년 때에 성적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3학년 때에 떨어진 것이 솔직히 아쉽습니다. 3학년이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부담감도 정말 많고 압박감도 많은 데 즐기면서 잘 해쳐나가면 후배님들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하고 싶은 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저 스스로도 하였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응원과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도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셨기에 대학을 합격한 것 같습니다. 1,2학년 때에 이은형 선생님, 3학년 때에 허성희 선생님 항상 아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주신 모든 환일고 선생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 합격

3학년 이재혁

1. 지원대학 / 학과 / 전형 : 육군사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별로 총 2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내신 등급 / 수능 최저 반영 유무 : 육군사관학교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지 않고 일반전형인 경우 반영되지 않아 모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좋다면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선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능 점수는 우선선발이 떨어진 후 정시 선발로 넘어간 경우 반영되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3. 집중 준비 기간 : 2학년 겨울방학부터 체력 검정을 준비했고, 1차 시험 준비는 세 달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2차 시험 준비는 1차 시험 합격 발표가 난 후부터 시작했습니다.

4.준비한 내용 : 1차 시험은 3개년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수능특강 문제를 풀었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7개년 문제를 풀고 분석하였습니다. 면접은 군 관련 뉴스와 면접 후기를 찾아보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고, 체력 검정은 매일 아침 체육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5. 성공 요인(중요 스펙 및 스펙 쌓기 방법) : 1차 시험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 것, 2차 시험에서는 학교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생기부와 높은 체력 검정 점수가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정예장교 양성 기관인 만큼 리더십, 성실함, 체력 등을 보기 때문입니다.

6. 준비하면서 느꼈던 아쉬움 또는 어려움 : 2차 시험 일정이 빨랐기 때문에 체력 검정을 준비하면서 개수가 쉽게 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찾고 정리하여 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생기부에 군과 관련된 활동이 없었던 점과 면접을 볼 때 예상 질문에서 모두 벗어나 준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하여 일찍 결정하고 준비 했다면 생기부에 적절한 활동을 담고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7. 후배에게 하고 싶은 조언 : 먼저 모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3학년이 되고 원서를 쓰면 마치 그 대학에 이미 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자칫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전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입시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시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참아라”와 “절대 포기하지 마라”입니다. 다른 대학보다 입시가 먼저 시작되고 일찍 발표가 나는 만큼 초반에 유혹을 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놀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합격한 후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1차 시험 예비번호를 받거나 우선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추가 합격또는 정시 선발 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멋진 사관생도가 되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계열 합격

3학년 김우진

1. 지원대학/학과/ 전형 :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계열 국제인재전형(특기자), 국제인재전형은 언더우드 국제대학만의 특기자 전형을 말하며 다른 대학의 특기자와 다릅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지원 가능한 분야에는 언더우드계열(UD), 융합인문사회과학계열(HASS)가 있습니다. 다른 전형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소서의 문항이 대교협 공통문항과 다르며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은 모든 제시문과 질문이 영어로 제시되며 UD의 경우 전 항목 영어로, HASS의 경우 마지막 문항만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제가 지원한 HASS 계열 내에는 경영, 아시아학,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개설돼 있으니 관심 분야와 관련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였으며 영어로 의사소통, 심층 사고가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2. 내신등급 1.7 / 수능최저 반영유무 : 국제인재전형은 내신, 생활기록부, 자소서, 면접 이 네 가지가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신과 생활기록부를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관심분야, 탐구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자소서를 통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지 않은 지원자의 생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HASS/UD의 자소서 문항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평소 관심 분야를 더욱 보여줄 수 있는 문항들이 많으므로 자소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신등급은 1점대, 생활기록부는 모든 과목에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인재전형은 10월 중에 1차 발표가 나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수능 이전에 모든 입시가 끝난다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수능과 면접 준비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지만, 사회탐구 과목은 면접 때 중요하고 다른 대학 지원 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집중준비 기간 : HASS를 염두에 두고 집중적으로 준비한 기간은 면접 준비 3개월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문화,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만들어진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 준비한 내용 : 1) **생활기록부 :** 저는 거창한 활동보다는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꾸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입학 후 ‘이 재미없는 학교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생각으로 방송부, 학생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소위 말해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일을 만들어서 하는 학생이었 습니다. 음악회, 합창대회, 봉학마루제와 같은 판이 열리면 다양한 문화요소를 끌어오려 노력했습니다. 먹거리 부스를 기획하고 학교와 관련된 조형물을 만드는 등 기획, 디자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진로, 자율, 동아리, 행특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학생으로 어필된 것 같습니다. 세특과 같은 경우 우리 주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도 좋고 더 나아가 인문학적인 고찰이 더해진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디자인, 언어, 문화를 엮어 실용적인 범위에 그칠 수 있는 디자인에서 사회학적, 언어학적인 접근을 통해 디자인의 인문학적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봤고 발표, 보고서 등을 통해 세특에 녹여냈습니다. 2) **자소서 :** 자소서는 HASS를 지원하는 학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는 총 2개의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번 문항은 4가지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2번 문항은 지원동기로 공통입니다. 자소서 선택 문항 모두 자신의 관심 분야와 탐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자소서 안에는 개인적 경험, 인문학적인 접근, 탐구 과정,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 이루고 싶은 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심 분야에 대해 국제적인 관점이 들어간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국제관계에서 문화적 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여 생활기록부 속 문화적, 정치적인 요소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3) **면접 :** HASS 계열의 면접은 제시문 면접으로 모든 문항이 영어로 출제됩니다. 제시문은 총 2개가 제시되고 각 제시문 당 2~3개의 질문이 제시문 밑에 한영 병기로 적혀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영어로 답해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제시문 숙지 밑 답변 준비가 20분간 가능하고 10분 동안 면접이 진행됩니다. 교수님은 2명이 있으시며 학생들의 긴장을 풀어주시려 하십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읽은 것입니다. 3년 동안 배웠던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 역사적 사실과 법과 정치, 사회문화에서 배운 사회과학적 내용을 연결해주고 정리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를 읽은 것입니다. HASS 제시문은 인문 철학 지문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 사상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이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성공 요인 :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학교생활을 한 것이 저의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서 학교 홍보영상과 수능 현수막을 만들고, 축제가 재미없어서 축제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등, 제가 속한 곳 중 가장 세상과 비슷한 학교를 바꾸려고 한 것들이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 잘 녹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아시아사, 세계사 과목에서 배운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사회과학 과목에서 배운 이론들이 면접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교외상

보훈정신함양자원봉사 수범활동공모대회 대상

2학년 양원석

서울일반고 모의 유엔총회 우수활동상

2학년 김윤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장려상

1학년 한준희

2019 중구 청소년축제 야~호~ 음악부문 으뜸상

2학년 함시온

제36회 전국남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대회 남고 1000m 2위

1학년 이은재

교내상

미술공모전 금상

2학년 이인준

정치기사 다시 쓰기 대회 금상

2학년 백영현

드론레이싱 대회 금상

1학년 이태연

창의적 산출물 대회 발명 부문 금상

1학년 이진호

창의학술보고서 대회 자연부문 금상

2학년 양원석

2학년 황재영

2학년 송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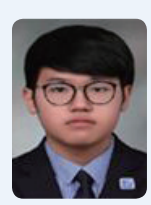
창의학술보고서 대회 인문부문 금상

2학년 이지석

2학년 유승훈

창의적 산출물 대회 과학부문 금상

2학년 김선우



2학년 김준수

2학년 복헌준

창의적 산출물 대회 수학부문 금상

2학년 조재원

2학년 김경석

2학년 정주형

조형물 대회 금상

2학년 이정준

2학년 정유민

토론왕 대회 금상

1학년 강동민

1학년 고성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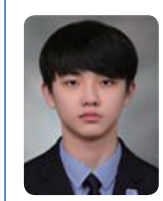
1학년 손민우

중국 민속놀이 경연대회 금상

1학년 이정재

2학년 이경수

중국어 말하기 대회 금상



2학년 복헌준

은행나무 우수 기자상

1학년 성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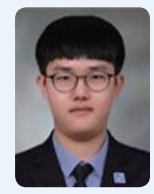
1학년 이현규

1학년 허승범

2학년 이창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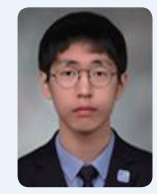
2학년 복헌준

2학년 최승정



2학년 방주현

2학년 백영현



2학년 이지석

2020년 1,2월 주요 행사

1월	2일 신년하례식 및 예배 3일 겨울방학 1차 방과후학교 시작 20일 겨울방학 1차 방과후학교 종료 30일 개학식	2월	6일 졸업식 7일 종업식 10일 겨울방학 2차 방과후학교 시작 17일~20일 신입생 OT 21일 겨울방학 2차 방과후학교 종료